

SK, 이천에 영림단지 43만평 조성

호법면 단천리 일대에 85억원 투입 수목원 조성 ... 관광단지 육성

경기도 이천시는 12월13일 SK가 호법면 단천리 산30 일원 43만평에 수목원 조성이 포함된 영림사업계획을 수립해 산림형질 변경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제1지구에는 은행나무 바이오 조림단지와 조경수 포지, 제2지구에는 수목원과 야생초화원 등이 각각 들어서며 85억원을 들여 2006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은행나무 조림단지는 혈액순환개선제의 생약원료 공급처로 활용되며 수목원과야생초화원은 도시근교 휴양시설로 개방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조성 예정지가 중부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30도 이하의 완만한 지형이어서 녹색자원의 관광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4/12/14>